

1천만 관광시대 고흥, 머무는 여행으로 관광의 판을 바꾼다

체류·경험 중심의 '2026 관광 활성화 대책' 본격 가동

1천만 관광객 시대를 눈앞에 둔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26 관광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며 지역 경제에 온기를 더하는 내실 중심의 관광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관광 경험의 밀도'에 있다. 고흥군은 우주항공 자원부터 섬과 해양, 치유의 숲, 남도 미식까지 다양한 관광 자원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었다. 낮에는 바다의 바람을 느끼고 밤에는 우주의 별을 마주하는 여행, 육지에서 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여행을 설계해 관광객이 고흥에서 이들 이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콘텐츠 운영 방식을 혁신한다. 군은 상반기부터 블루마린 자전거 여행과

생태치유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주요 이벤트를 전진 배치해 비수기 없는 관광 흐름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MZ세대의 여행 트렌드를 반영해 고흥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감각적인 포토존을 단계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사진 한 장이 고흥 여행의 동기가 되는 SNS 마케팅도 강화한다.

관광의 경제 선순환 구조도 촘촘히 설계했다. 단발성 방문에 그치지 않도록 관광 인센티브와 입장료를 지역화폐로 환원하는 체계를 확대 적용하고, 숙박 할인 및 철도 여행 연계 상품을 통해 방문객의 실질 지출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관광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의 정밀도를 높이는 한편, 주민 참여형 관광 조직을 육성해 여행의 품격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군 관광정책실 관계자는 "2026년은 여행의 길이와 품격을 완성하는 질적 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고흥에서의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행의 깊이가 더해지고 휴식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구례군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 경우 자동차에 16일부터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 법에 따라 경유 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2회(3월, 9월) 정기 부과되며, 일시 납부(연납) 신청할 경우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매년 1. 16. ~ 1. 31. 중 일시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10% 감면 받으세요

구례군, 경유차 소유 대상자... 31일까지 연납 신청 접수

경유, 전년도 하반기(2025. 7. 1. ~ 12. 31.) 및 해당 연도 상반기(2026. 1. 1. ~ 6. 30.) 기간 동안 부과될 환경개선부담금의 10%가 감면된다.

기존 연납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etax)로 납부 가능하며, 신규 신청자는 인터넷 위택스(wetax)를 통해 연납신청 후 바로 납부하거나, 구례군 환경과(☎780-2154, 2146)로 신청하면

된다.

만약 신청 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고지가 자동 취소되며, 감면 혜택 없이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신청하면 10%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며 "경유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장흥군, 2026년 군정 청사진 확정... 업무계획 보고회 지속 가능한 장흥 위한 군정 방향 점검

장흥군이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김성 장흥군수를 비롯해 실과소장, 팀장이 참석했으며, 전년도 업무 성과와 2026년 중점 추진사항 및 주요 시책을 공유했다.

2026년도 예산은 총 5,6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9억 원(5.04%) 증가했으며,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식, 문화관광 분야의 재원 배분을 확대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문화·관광 △농·수·축산업 육성 △지방소멸 대응 △맞춤형 복지 △소통 행정이라는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문화·문학·역사 자원을 아우르는 체류형 관광거점 구축을 위해 빼빼움zip 콘텐츠 확충, 편백숲 우드랜드 생태숲길 조성, 전통사찰 보리사 정비사업 등을 추진한다.

농·수·축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친환경 농업 내실화, 지역별·품목별 단

격적 집단화,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 스마트 양식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농·수·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소멸 대응 분야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확대에 대비한 조례 제정 등 사전 준비, 청년 커뮤니티센터 조성,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분양률 80% 달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인구 감소 폭 둔화에서 더 나아가 인구 증가로의 전환을 위해 전념할 계획이다.

맞춤형 복지 분야에서는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한 운영체계 구축과 더불어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추진,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등 아동·청소년·어르신·취약계층 모두를 아우르는 복지 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소통 행정 분야에서는 찾아가는 읍면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상·하반기 군민과의 대화, 직능·사회단체 소통간담회를 추진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장흥군 제공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장성군, '풍년 농사의 시작'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시행

장성군이 지역 농업인들에게 최신 영농 정보를 제공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시작했다. 14일 삼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첫 번째 시간에는 △공익직불제의무교육 △한랭질환, 노로바이러스, 진드기 등 감염병 예방 △농작업 및 농기계 안전수칙 안내에 이어, 고추 재배 기술에 관해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됐다.

15일에는 삼서면, 16일 서삼면, 19일 장성읍, 20일 북일면, 21일 북하면, 22일 북이면, 23일 남면, 26일 진원면, 27일에는 황룡면에서 교육을 가질 예정이다. 마지막 수업은 28일 동화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이후에는 2월 한 달 동안 총 5회에 걸쳐 콩, 단감, 딸기, 아열대 과일 재배에 관한 품목별 전문가교육이 열린다.

장성/황해연 기자



영광군, 미래농업자원육성센터 공사 현장 점검 실시

영광군은 1월 13일(화), 지역 농특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미래농업자원육성센터 리모델링 공사 현장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올해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리모델링 공사의 공정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센터 운영을 대비해 시설 안전성과 활용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미래농업자원육성센터는 기존 공장을 리모델링하여 농산물 가공실, 떡 상품개발 테스트베드, 실습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과 소규모 농업인 경영체가 공동 가공시설을 활용하여 시제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점 시설이다.

영광/이현식 기자



진도군, 야생멧돼지 등 퇴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진도군은 야생 멧돼지 등의 민가 출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2명을 선발하고 연중 운영하고 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농경지 등에 출몰하는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과 농작물 피해, 분묘 훼손을 예방하며 밀렵, 밀거래, 위법행위 근절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야생동물의 포획을 요청하면 포획 허가를 받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출동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량 폐기 처리한다. 또한, 도서 지역 멧돼지의 개체수가 급증해 농작물과 인진도군 환경수질과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 재정 역량을 최대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